

비대면 수업 영향?...학생 스트레스 크게 낮아졌네

‘2020년 광주교육 종합실태조사’ 결과

2018년 18.0%서 3.8%로 줄어

삶의 만족도 다소 높아져

인권·다양성·통일 긍정적 인식

교사, 교과지도 등 스트레스 상승

학부모,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62%

광주지역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낮아졌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020 광주교육 종합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동안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3.8%로, 이는 지난 2018년 조사 당시 18.0%에 비해 14.2%p 낮아진 것이다.

친구와의 갈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성적을 포함한 학업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학교생활 관련 스트레스는 낮아진 반면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 등 가정생활 관련 스트레스는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예년 대비 크게 줄었던 대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학생들이 생각하는 본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6.8점(10점 척도)으로,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평균인 6.41점보다 약간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광주지역 학생들의 인권, 다양성, 통일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이다.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광주 학생 21.6%로 전국 학생 6.3%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학생 응답률은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인용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에서는 광주 학생의 20.5%, 전국 학생은 4.0%

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은 광주지역 학생의 26.3%, 전국 학생들의 8.1%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이기연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당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광주교육 지표를 토대로 꾸준히 광주정신을 배워온 것이 광주 학생들의 인권·다양성·통일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스트레스도 지난 2018년 조사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학생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2018년 30.1%에서 11.5%로 크게 낮아졌다. 담당 행정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응답률은 2018년 29.8%에서 17.5%

로 떨어졌다.

하지만 교과지도 등 수업 전문성에 의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사의 비율은 2018년 3.2%에서 올해 5.0%로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은 62.2%(매우 그렇다 25.7%, 대체로 그렇다 36.5%)로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부모들이 ‘학교가 자녀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9%, 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7.0%, ‘초등돌봄교실을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52.9%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부모 대상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하는 분야는 ‘자녀와의 대화기법’ 35.9%, ‘자녀의 인성 및 예절지도’ 27.2%로 조사됐다. 일반고 학부모는 ‘진학 및 진로지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지도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2.3%로 많았다.

김준영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로 교육현장의 모든 주체들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교육청 차원의 종합 대응을 만들어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팬데믹 이후의 교육, 광주 미래교육의 큰 방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고사리 손으로 모은 저금통 나누기

광주시 동구 애벌B유치원(원장 최봉훈)원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연말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 행사를 가졌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 전남대병원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전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평가(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유공 단체부문)에서 총점 89.5점을 획득, 전체 평균(83.8점) 보다 상회하는 성적으로 최우수 기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으며 2014-2016년, 2018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최고의 의료기관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공공성 강화, 양질의 적정진료, 건강안정망, 미중족서비스 4개 영역(35개 세부지표)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종합적인 평가결과 전남대병원은 전반적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 근거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견에 대한 반영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병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랑나눔의료봉사단의 활동이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의료지원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길거리 노숙인, 장애인 생활시설, 해외의료봉사 등 다각적인 의료봉사를 위한 노력도 높이 평가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

학교밖 청소년 3명 중학 학력 인정

전남교육청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중학교 재학 도중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3명에게 중학교 학력 인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영광·광양·화순·보성·곡성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온라인 수업 등 중학교 학력인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졸에 해당하는 인정서를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비대면 문화체험 키트를 제공하는 한편 방문지도사가 학생들과 목공예, 가죽공예, 피포메이팅(명화 그리기) 등을 함께했으며, 학습에 어려운 초등학생 친구들을 위해 직접 시간표를 짜서 학습을 지도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중학교 학력인정제를 도입해 2018년 6명, 2019년 4명, 올해 3명 등 총 13명에게 인정서를 줬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중학교 재학 도중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학업의 기회를 놓친 이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송정 KTX 경유 버스 노선 신설해달라” 광주시 수용 여부 주목

광주시 북구가 지역 내 인구 밀집지역을 통과해 광주 송정역에 이르는 ‘송정 KTX 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각하동·문흥지구·일곡지구·양산지구를 거쳐 시청,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송정역에 이르는 버스노선 신설을 올해 초부터 광주시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북구는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초부터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정면허(3년)를 통한 ‘송정 KTX 버스 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북구가 요청하는 신설 버스노선은 지난해 광주 도심과 광주공항을 이어주던 공항버스 ‘1000번’이 적자로 인해 운행을 중단함에 따라, 이를 대체

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지난 2015년 광주 송정역에 KTX 호남고속선이 개통됐지만 북구 주민들은 지리적으로 가장 떨어져 있음에도 대중교통이 부족해 불편을 겪었다. 여기에 광주 도심과 광주공항을 이어주던 공항버스 ‘1000번’이 지난해 11월 적자누적으로 폐업을 했다.

철도통계연보(2018년 기준)를 보면 광주 송정역의 연간 이용객은 495만 5361명이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 3576명이다. 이중 광주 주민이 52.8%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고 서울·경기·인천 등 기타가 43.5%, 전남이 3.8%였다. 광주 주민중 북구 주민이 17.0%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14.8%), 서구(10.0%) 등의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하루 평균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는 북구민은 약 2308명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중교통 대신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구가 신설을 요청하는 버스노선이 만일 수익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폐업한 1000번 버스와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에서 인건비·유류비·차량정비비 등의 운영비용을 보전해 주지만, 한정면허의 경우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수익확보가 더 필수적이다.

북구는 신설 노선의 운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설노선은 12대의 차량 노선으로 운영할 경우 1일 소요 비용은 748만 9920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인카드 요금(1250원)기준으로 5992명의 승객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구는 신설 노선과 비슷한 계통인 금행 6개노선 선선 30개 노선의 환승을 제외한 승차 이용객은 평균 7621명인 것을 고려 했을 때, 1일 승차량은 6000명 이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승객이 많은 지점과 인구 밀집지역을 경유해 수익성을 확보하면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구가 광주시에 건의한 신설노선은 광주송정역·시청·북부경찰서·도로교통공단대신파크·오치한전·광주병원·문흥지구 입구 등을 경유하는 노선(거리 27.7km·37개 정류소)으로 총 주행시간은 90-100분 가량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K-POP
K-FOOD
K-CULTURE

K-GREEN
NEW
DEAL

K-팝
K-푸드
K-컬처

이제는 K-그린뉴딜!

전세계 음악과 음식, 문화를 선도하는 KOREA
이제 K-그린뉴딜로
새로운 글로벌 환경과 경제를 선도합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개발에 이르기까지
한국서부발전이 K-그린뉴딜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
KOREA WESTERN POWER CO., LTD.